

1월18일(월)/사도행전6:1~6

**제목: 소외된 자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내어놓은 헌금으로 구제 대상자를 정하는 문제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었고 소외된 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었다(1절).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 본토 유대지방을 떠나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본토 유대인들과 이주한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있었다. 당시 열두 사도는 구제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담하였으므로 이러한 실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2절). 그래서 구제하는 일만 전담으로 하는 일곱 사람을 뽑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일곱 명이 선출되었다. 결과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만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4절). 그런데 일곱 명의 사람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헬라파 사람 중에서 일곱 명이 선출된 것이다(5절). 구성원 간에 무시 받고 차별받는 사람 중에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이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만일 교회에서 혹은 구역에서 혹은 부서에서 매사에 불평 불만하며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직임을 주어 일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월19일(화)/사도행전6:7

**제목: 교회 부흥과 개혁의 비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손을 떼고 일곱 집사들에게 맡긴 후 그들이 말한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잘 조직된 유기체로 돌아갔다. 교회가 내적으로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 교회의 조직체가 잘 갖추어지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즉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박해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자 교회가 성장하였으며 교회가 성장하자 그 능력도 증가되어 그 역사도 커졌다. 누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함으로 단락을 끝맺고 있다. 성전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도를 수행하지 못했던 그릇된 제사장주의가 현실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 부흥 및 개혁의 비결은 잘 조직된 행정체제와 말씀에 있다. 교회가 조직이나 행정만을 강조해서도 안되고 또 말씀 하나만을 강조해서도 안된다. 두 가지가 다 잘되어야 부흥과 개혁을 이룰 수 있다.

1월20일(수)/사도행전6:8~15

**제목: 부드러우면서 강한 남자**

일곱 집사중 한 사람인 스테반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복음에 대하여 논쟁하여도 지치지 않았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9~10절). 그와 논쟁한 자들은 정당한 말로 결국 그를 이기지 못하자 중상 모략하였다. 심지어 거짓증인까지 내 세웠다. 거짓증인들은 계속해서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에 위배되는 말만했다고 증언했다(11~14절). 그러나 공회 앞에 끌려 나온 그는 너무나 당당하고 담배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15절). 그는 항상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순교하기 전 이미 순교하였다 그는 순교하기 전부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냉혹하고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순교자적인 삶 뒤에는 그의 인격이 있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었다(1절). 은혜란 아름답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것을 뜻하고 권능이란 활기와 결단력과 위엄을 뜻한다. 사람이 이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의 덕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의 카리스마까지 느끼게 된다. 스테반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조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카리스마가 있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의 사람이 항상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1월21일(목)/사도행전7:1~16

**제목: 성서 지식을 쌓읍시다.**

스테반이 순교직전에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스테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역사를 서술하여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시함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였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1~8절). 두 번째 부분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9~16절).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스테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장 시대를 설교한 것은 자신이 이런 구약적 전통에 충실한 자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변론하기 위함이었다. 스테반은 목회자가 아니었다. 그는 초대교회에 구제를 담당하는 일곱 집사 중 한명이었다. 그는 평신도로서 대단한 성서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평신도들도 전문적인 신학수업을 받을 수는 없지만 스테반 정도의 성서지식을 쌓는다면 개인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남을 지도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1월22일(금)/사도행전7:17~36

**제목: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설교한 후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모세와 율법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의 지식을 서술함으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자기에 대한 고소가 잘못 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19~36절). 그러나 동시에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냄으로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하였다(26~29절). 즉 스데반은 출애굽과 율법의 주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율법과 모세를 존중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싶었다. 유대인들은 율법 그 자체와 모세를 존중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고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이 보내셔서 오셨으나 자신들의 전통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부각하였다. 스데반이 설교를 이끌고 나가는 배후에는 모세의 언약함을 부각함으로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인간을 너무 부각해서는 안되고 항상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